

탄허·서옹 스님 禪詩비 제주 법화사에 건립

법륜상·해신 장보고상 등 세워

당대 최고의 석학이자 선승인 탄허, 서옹 스님의 시비가 제주에 건립됐다. 제주 법화사주지 시공은 8월 11-12일 양일간 경내에 법륜상, 해신 장보고상, 탄허·서옹대종사 선시비, 소암 현종화 휘호비를 건립하고 이를 기념하는 연꽃축제를 개최했다.

11일 열린 제막식에는 고불종립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과 백양사 주지 두백, 관음사 주지 용주 스님 등 사암 스님과 이영두 서귀포 시장, 김문경 장보고연구회장, 불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수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일찍이 서옹 스님은 '제주도를 환태평양 시대의 중심으로 세계평화의 섬이 될 것이다'고 예견하셨다"며 "제주불자와 시민들도 큰 스님들의 시비를 가슴에 새겨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시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983년 탄허 스님이 시를 짓고 소암 선생이 글씨를 써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법화사 중창불사의 토대가 됐다"고 회고하고, "제주와 인연 있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비를 제작한다"고 말했다.



8월 11일 제주 법화사에서 열린 서옹 스님의 선시비 제막식.

이날 낙성한 선시비는 3-6m의 커다란 돌로 탄허, 서옹 스님이 법화사를 방문해 직접 쓴 시를 새겼다.

법화사는 12일까지 열린 연꽃축제 기간 동안 구품연지 일대에서 연꽃그리기 대회, 불교작품 소장전 및 서각전, 가훈 써주기, 연꽃 차와 음식 시음, 연꽃음악회 등 다채

로운 행사를 펼쳤다.

한편 법화사는 27년 전 시공 스님이 북원중장을 발원, 2800여 평의 경내지를 3만 평으로 확장하고, 17년에 걸친 발굴과 6차례의 학술대회를 거쳐 대웅전, 구품연지, 구화루, 백련당 등을 복원했다.

제주/글·사진=이준엽 기자

지상중계 - 원각사 재가논강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① 보시바라밀

호남 최초의 재가논강이 8월 11일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 대웅전에서 시작됐다. 삼복염천속에 진행된 첫 번째 논강에는 200여명의 불자가 참석해 2시간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토론에 참여했다.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9월 22일까지(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계속되는 이번 논강은 지역의 재가불자가 논주와 토론자로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보시,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지계 등 육바라밀을 소주제로 진행되는 재가논강을 6회에 걸쳐 요약한다.

첫번째 '보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용원(중암승가대) 교수는 "보시는 타인에게 자비심으로 베푸는 일체의 행위로 복덕과 지혜를 갖추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다"고 규정했다.

특히 "불교에서의 보시는 보시하는 사자(施者), 시물(施物), 받는 수자(受者)가 모두 청정(三輪淸淨)해야 하며 시자의 마음가짐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베풀었다'는 집착이 없이 하는 무

주거나 속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보시바라밀의 실천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복덕과 지혜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행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불교도를 만들어 가는 초석을 놓는 것이 된다. 보시바라밀의 주체는 불사이지만 그 장은 사찰이 되어 그것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사찰의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해지면



호남지역에는 최초로 8월 11일 광주 원각사에서 재가논강이 열렸다.

사찰, 복지 활성화해 사회환원 확대야

물질보시와 함께 무재질시 실천을

또한 "도리에 벗어난 방법으로 구한물건, 중생을 어지럽게 하거나, 괴롭히고, 해치고, 깨끗한 마음을 깨뜨리는 물건은 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보시는 사회복지 서비스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제도화, 체계화되고 있다"며 "불교사회복지에서도 보시 바라밀 사상의 실천방법을 현대사회에서 적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불교사회복지로 "물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방법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같은 정신을 잘 제시하는 것이 무재질시"라고 주장했다.

무재질시는 반드시 재시를 하지 않고도 보시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일곱가지 방법으로 안시(眼施: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화안색시(和顏悅色施: 자비롭고 미소 띠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것), 언사시(言辭施: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신시(身施: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심시(心施: 착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상좌시(坐座施: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방사시(房舍施: 사람을 방에 재워

개인의 보시바라밀도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보시바라밀은 불교도를 만들어 가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알아 현대에 적합하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토론 요약
▲ 보시를 하면 해탈 할 수 있는가?
- 해탈로 가는 것이 수행이고, 삼투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라고 볼 때 보시행은 마음의 때를 벗어 버리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수행이며 해탈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 타종교는 십일조로 재정을 충족하고 있다. 포교와 가람 수호를 위해 재가불자가 신행활동하면서 보시를 할 때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적사찰의 물적대비는 신도들의 시주로 운영 되어야 떳떳하고 힘이 있다. 대안으로 일정 부분 보시를 서원하고 일일동안 나눠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직접 보시하기 어려우면 다른 사람이 시주할 수 있도록 회주 하자.

정리·사진=이준엽 기자

금산사 미륵전 보살상 복원불사

장마로 등판 일부 손괴



국보 62호 금산사 미륵전에 봉안된 미륵보살상 복원을 위한 불사가 시작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은 8월 13일 미륵전에서 '법화림, 대묘상 보살상 복원을 위한 참회 전일기도'에 들어갔다.

이날 입재식에는 지역 사암 스님과 김완주 전북 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 등 지역 기관장과 김백호 전북신도회회장, 불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다(사진).

이 자리에서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은 "국내 최대 소조불인 미륵삼존불이 400여년의 세월이 흐른 이즈음 손괴되고 있어 복원하고자 한다"며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금산사 미륵전 보살상 복원불사는 도자기 굽는 점토, 국내산 삼베에 옷칠 과정을 거쳐 3년 후 회화한다.

한편 미륵전 삼존불 가운데 좌보처 법화림보살은 장마가 한창이던 지난 7월 17일 어깨등판 일부분이 무너져내리는 피해를 입었다.

호국관음사, 정암스님 초청법회



육군 31사단 군법당인 호국관음사(주지 정운성)는 8월 13일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 초청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정암스님은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좋은 말과 얼굴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자비실천 불자상 세우자' 대불련 총동문대회 개최



한국대학생활교원협회 총동문회(회장 성기태)는 8월 12-13일 양일간 김제 금산사에서 '2006. 대불련 총동문대회'를 개최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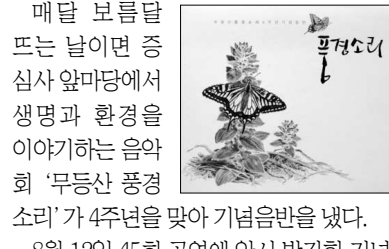
'대불련 깃발아래, 함께 뛰는 자비실천'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문문과 가족 40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 입재식에서 성기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불련 창립 43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불자상을 세우기 위해 자비실천연대를 발족하자"고 제안하고 전주시와 김제시에 특거노인을 위한 자비의 쌀 40kg을 전달했다.

이번 대회기간 중에는 108명만 만들기, 산사음악회, 어린이 숲속불교학교가 열렸고, 월주 스님(복지사)을 건설을 위한 자비와 실천행, 박세일 교수(대한민국의 선진화, 국가비전과 전략의 특강도 펼쳐졌다.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사 : (010)3069-3170

무등산 풍경소리 창립 4주년 기념 음반 발간



매달 보름달 뜨는 날이면 중심사 앞마당에서 생명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음악회 '무등산 풍경소리'가 4주년을 맞아 기념음반을 냈다.

8월 12일 45회 공연에 앞서 발간한 기념음반 '풍경소리' (사진)에는 '더불어 숲' (전경숙), '우리가 어느 별에서' (안치환) '무등아리랑' (이미랑, 임형선) 등 시대의 장르를 아우르는 16곡의 노래와 연주곡이 담겼다.

또한 음반에는 그동안 풍경소리에 출연한 박남준, 박원순, 황대권씨 등 시인, 시민운동가와 임의택 목사, 도법 스님 등 종교인들의 대화가 음악과 함께 수록되어있다.

이번 음반발간을 주관한 중심사 주지 진화 스님은 "종교와 승속을 떠나 풍경소리를 통해 무등산 세계를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원봉문도회 9월 21일 산사음악회

원봉문도회는 8월 16일 청주 무심정사에서 회의를 열고 9월 21일 청주 보현사에서 지장전 불사 회향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를 열기로 했다.

음악회는 본사 대전총부지사와 청주불교방송 공동 주관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명예술단의 대북 공연과 불자가수들의 공연으로 준비된다. 앞서 원봉문도회는 청주 무심정사에서 미륵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3년과정 불교한문학과

1. 개설취지
한문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고전과 한문 불교경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한문의 적용과 한문의 독해력 배양이 필수입니다. 국제화, 세계화되는 중국어의 기본인 한문에 대한 심층적인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2. 교과목
◎ 불교한문학과(3년과정) *정규반, 통선반

교과목	초발심자경문 · 육조단경 · 한학연구입문 · 한자학원론 · 어순으로 푸는 한문해석 · 설문해자 · 중국고전① · 중국고전② · 한국고전① · 불교경전① · 불교경전② · 대장경과 역경사
지도	심재동교수(동국대) · 심경호교수(고려대) · 김형중(동대부교 교법사) · 부진경스님

3. 개강일시
2006년 9월 7일(목) 오후 7시
*특전: 3년과정 수료후 연합포교사 응시

장례지도사 양성 불교장례문화학과

1. 교과목

과정	과목
1년	장례학개론 · 법의학 · 상장례민속학/역사 · 장묘관련법규 · 종교와 불교 · 장사법위주 · 실습
2년	공중보건학 · 시신위생처리및 관리학 · 장례시각경정론 · 현행장묘제도외의제반적이고찰 · 생활과 풍수 · 불교장묘학 · 실습
지도	김미혜교수

2. 개강일시 2006년 9월 5일(화) 오후 7시
*특전: 2년과정 수료후 불교장례지도사 수여

여래선(如來禪)지도자 과정 입학안내

공부는 세계생생 하는 것이요, 부처님 교설의 본지(本旨)를 잘 알지 못하면 불지(佛智)에 들기는 요원하고 수행은 더욱 어려워져 진리의 왜곡과 헛된 망상에 빠질까 두려운 것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본원의 불교 특강은 2기 개강을 앞두고 불교의 핵심 교학인 여래선의 지도자 과정과 공사상의 특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의 교학편과 수행편을 마스터하는 과정을 개설하여 도제 양성을 위한 유연 도반을 모시고자 합니다.

- 개강: 2006년 9월 18일 오후 2시
- 대상: 스님, 일반인
- 특전: 1. 한.중.대만 3개국 인정 여래선 지도자(禪師) 자격증 수여 2. 수료후 선원개원 하실 분 행정 및 실기지원.

접수: 9월 12일 한 학기: 2학기

◀ 여래선 지도자(禪師)과정 ▶

개강일시	교과목	내용	교수	수강료
2006년 9월 18일	1교시 여래선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석마정 스님	1,2학기 전60만원
매주 월요일 오후 2시-5시	2교시 공사상(특강)	용수보살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동국대 문의식 박사	
법회일엔 화요일	유식학	우편 통신생	동국대 오형근 박사	교재포함 40만원

수강료 입금통장: 국민은행 547201-01-139081 입제선학원

공익법인 한국불교임제선학원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120-7 문의 02)496-3952-3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본대학 사무국 ☎ 02)732-1206-8 / 팩스 02)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